

유권자 알권리 침해·정치 다양성 훼손...제도개선 필요

6·3 지방선거 결과

② 참정권 박탈, 투표 없는 당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졌다.

총 781명이 등록된 가운데 기초단체장 2명과 포함한 80명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증을 받은 것이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63명과 비교했을 때 17명 늘어난 규모다.

무투표 당선자는 역시나 민주당 일색이었다. 광주 광산구의원 선거구에서 출마한 진보당 김명숙 후보만 비민주당이

무혈입성만 80명...일당 독점이 만든 폐해

선거운동 원천 차단 역대급 '깜깜이 선거'

호남정치 활력 위한 정치개혁 요구 봇물

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각각 무투표로 재선과 3선에 성공했으며,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70개 선거구 중 34곳에서 단독 후보만 등록, 지역구 의원 중 79명 중 43%가량이 투표 없이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단독 입후보자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는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중 24명 중 5명(20.8%)이 무투표 당선됐고, 전남은 지역구 광역의원 중 55명 중 절반이 넘는 30명(52.7%)이 투표 없이 당선증을 받았다.

순천 제6선거구 신민호 후보는 역대 최초로 3회 연속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

이따랐다. 광주에서는 각각 3명을 선출하는 북구 다선거구와 광산구 라선거구에 후보 3명씩만 등록해 모두 당선이 확정됐다.

전남에서는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가-라, 완도군 나, 신안군 라선거구 등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도 24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역대급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광주는 전체 유권자 118만9519명 중 64만 5848명이 투표해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 광주 투표율이 37.7%에 그쳤던 것에 비해 16.6%p 높았다.

전남은 전체 유권자 155만8206명 가운데 102만4147명이 투표에 참여해 6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보다 5.3%p 높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높아진 투표율에 비해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며 지역민의 참정권이 배제됐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투표 당선과 특정 정당 득점 구조가 호남 정치의 다양성과 역동성, 나아가 참정권을 훼손한다고 경고한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일당 독점 체제 아래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건강한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정기 관계자는 "민주당 일당독점 상황에서 내부 공천 경쟁이 곧 본선이 되는 구

조는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을 쥐고 있는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정치 교육이 부족한 정치인만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지역 행정의 서비스 질 저하와 주민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호남 정치가 활력을 되찾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 제도를 탈피해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소수 정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다양성이 확보되고 정당 간 치열한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동구, 6월 공감마당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2회 전국학생 미술·글쓰기 대회 시상과 구정발전 유공 구민에 대한 표창 수여를 하는 6월 공감마당을 개최했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 대상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

최우수상 해남 '땅끝햇살' 나주·보성·장흥 우수상 전문기관 블라인드 평가

전남도 가을에 전남을 대표할 고품질 브랜드 쌀 10개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쌀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남 쌀의 생산·유통을 선도할 '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평가 결과 대상은 담양군의 '대숲맑은 담양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해남군의 '땅끝햇살'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나주시 '왕견이탑낸쌀', 보성군 '녹차미인보성쌀', 장흥군 '아르미쌀'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은 영암군 '사계절이사는집', 영암군 '달마지쌀', 고흥군 '수호천사 건강미', 무안군 '황토랑쌀', 진도군 '보배진미쌀'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대숲맑은 담양쌀'은 품질·품위 평가와 식미 평가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해남 '땅끝햇살'은 국산 품종인 '새청무'를 기반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와 뛰어난 밥맛을 인정받



광주 수원지구 직거래센터 내 전남 10대 브랜드 쌀 홍보관.

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엄격 한 심사를 거쳐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식품연구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심사는 품종 혼입 여부를 비롯해 품위·품질, 안전성 검사, 식미 평가 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 브랜드별 경쟁력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10개 브랜드에는 품질 향상과 홍보·마케팅, 판

매 촉진 등을 위한 사업비 총 1억50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정책관은 "농업인의 땀과 노력으로 생산된 전남 쌀이 국내외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최고 품질을 인정받도록 생산과 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RPC 시설 현대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전남 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이번 선정한 10대 브랜드 쌀과 광주지역 쌀 제 품을 연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통합 광역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든든한 버팀목"...광주시,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위탁부모 등 100여명 참석...유공자 표창·아동학대 예방교육

광주시는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8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23회 가정위탁의 날(5월22일) 기념식'과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함께하는 위탁가정, 동행하는 아이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위탁부모와 아동, 관계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온

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기념식과 위탁양육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해 온 김다혜·박상길씨 등 위탁부모 2명과 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도운 가정위탁지원센터 윤민화 요원 등 총 3명이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러진 1차 보수교육에서는 위탁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아이의 마음을 여는 '아동과의 소통법'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실 있는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가정위탁센터는 오는 15일 시청 무등홀에서 2차 보수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12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권경희
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6월 4일
판사 서지혜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419 폭행
피고인 이완식
위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5월 29일
판사 차기현

광남일보가 만드는 사람 · 문화 · 관광중심 활간지

전략도시

커버스토리의
이인근
광산이씨 도문중 총회장

"철문 이선재 선생, 조선 단종 스승이자 광주 빛년 대표적 인물"

영광·영호 사는 보자 지조종-고려사·해동명적 편찬 참여
광주목 목원·광주목 목원-홍남 이씨 사당 '주목'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kidp 신미디어전문회사

Printing
Promotional item
AD
Design
NACOS
PR
Advertisement
Solution

나의 소통코스

중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인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미지가 있으면이 구독확실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학 자초의 성지, 전남 투룬산 대룡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